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 네트워크분석과 내용분석의 활용 -

최재성⁺

(연세대학교)

정세정⁺⁺

(연세대학교)

조자영

(연세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연구가 어떠한 경향적 특성을 보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경향성분석 방법으로 알려진 내용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취하고 반대로 약점은 상호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사례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논문 2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분석 및 내용분석 결과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조직’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적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천현장 중심의 새로운 주제들도 등장하나, 전통적인 주제들과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 근거 기반 개입 연구, 혼합연구방법, 담론적 논의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의 전통적 복지행정 영역의 주제들도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비해 희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한국사회복지행정, 경향성분석, 내용분석, 네트워크분석

+ 주저자

++ 교신저자(sejeong@yonsei.ac.kr)

1. 서론

일반적으로 학문과 학문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계를 기준으로 학문과 학문을 구분하고, 전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최근에는 융합적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하여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확대되어왔고 실제로 그러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최연구, 2009; 송위진, 2010). 자연과학과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이 배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상 학문의 경계는 학문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그 경계도 분명한 것이다. 정체성이 모호하면 경계 자체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학문의 독자적 지위가 위협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어찌보면 학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문의 발전 혹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이를 강화하고자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은 사회과학에서도 후발 학문으로 분류되며 사회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물론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등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후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은 학문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science)과 '기술'(art) 두 가지 모두를 끊임 없이 강조해왔다(Rubin and Babbie, 2008; Zastrow, 2013) 연구방법과 통계적 분석을 강조하는 전통과 대인관계 기술을 강조하는 전통이 그 대표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발학문이면서 동시에 응용학문이기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끊임없는 자기성찰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회복지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세부영역 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의 세부 영역과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인 학문분야의 정당성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사이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하는가? 특히 전통적인 분야(예, 정책, 행정, 실천) 혹은 영역구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혹은 대상 중심(예, 아동학대, 노인빈곤, 이주노동자 등)으로 사회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보건과 복지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인접학문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행정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민감한 질문들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문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복지행정도 당연히 부단한 학문적 검토가 있어야하지만, 최근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고찰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최근 10년간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연구가 어떠한 경향적 특성을 보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학 영역에서 최근 어떠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후속연구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연구 방법에서 연구경향성분석(trend studies)방법 중 대표적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각각의 분석방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취하고 반대로 약점은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행정학이란?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광의의 유럽식 관점과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미국식 관점으로 설명된다. 광의의 유럽식 사회복지행정은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일찍이 Kidneigh(1950)가 정의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협의의 미국식 관점은 사회복지서비스관리(management in social service)로, 어떻게 조직을 잘 관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다시 말해,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조직목표, 기술, 문화 등에 의해 형성되는 ‘관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Patti, 2000).

한국식 사회복지행정은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으로 유럽과 미국, 광의와 협의의 개념의 중간선 상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협력적인 활동의 체계와 과정’으로 정의내린다(황성철 외, 2013).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서는 사회복지행정학이 응용학문(applied science)의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 영역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관련하여 영역 간의 중첩성과 학문적 경계의 복잡성이 사회복지행정의 독특한 특성임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김영중, 2010). 또한 사회복지행정이 거시적 실천의 일종으로, 공공과 민간 조직을 포괄하면서 수평적 영역과 수직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황성철, 2002). 수평적 영역은 활동의 영역에 따른 구분으로 관리(management)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며 조직관리, 환경관리, 자원관리,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한다. 한편, 수직적 영역은 관리자의 위계수준에 따른 활동영역의 구분으로 최고관리자가 주로 활동하는 정책(policy) 영역, 중간관리자가 주로 활동하는 관리(management) 영역, 일선관리자가 주로 활동하는 서비스(service) 영역으로 구분된다(황성철 외, 2013). 종합하면,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영역은 조직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활동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협의의 미국식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도 가깝지만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와 관련한 관여의 정도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과 같은 영역도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아 왔다.

2)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경향성 연구

경향성 연구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성찰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이 두어진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경향성 연구보다는 이해경(1995), 김상균(2005), 김영중(2010) 등에 의해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도된 바 있다. 특히 김영중(2010)은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의 발달과정을 1950-1970년대를 개인치료중심의 사회사업행정학의 시기, 정책적 관점을 포함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시기, 사회서비스, 휴먼서비스로의 개념 확장과 복지혼합이 나타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인 3단계로 구분하고 이론체계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정비의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문의 도입, 발전과정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주로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공론장의 논의 즉, 연구결과물들은 분석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김연옥(1998)은 한국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 경험적 분석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모두 12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제한적으로 황성철(2002)이 연구동향의 파악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정체성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학문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문과 실제로 연구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연구동향의 분석은 특정주제(예: 사회적 기업, 직무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전반적인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경향을 확인하는 작업과는 다르다.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경향은 메타분석(meta analysis),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 그리고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될 수 있으나 한 학문분과에 대한 전체적 트렌드를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고찰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네트워크 분석(매핑)을 활용한 방법이나 내용분석을 활용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네트워크분석까지 시도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내용분석, 공인용분석 등을 활용한 경향성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1947년부터 10년간의 사회복지학연구의 형태를 분석한 Greenwood(1957)의 연구, 1956년부터 1980년까지 6개의 사회복지분야 저널의 내용을 분석한 Tripodi(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odge 외(2012)는 2000-2009년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Webb(2001)의 근거중심실천을 주제로 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며 중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Kreisberg와 Marsh(2015)가 사회복지학의 지식생산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용횟수가 많은 69개의 미국 논문과 31개의 유럽 논문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경우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이나 이론을 주로 다루는 반면 미국의 경우 인구집단, 개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여 유럽과 미국에서의 학문적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인용분석을 시도한 사례로는 Bush 외(1997)의 연구와 Slater 외(2012)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네트워크분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경향성을 분석한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인접학문인 사회학과 행정학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향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학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40년간의 사회과학 학술지간의 공인용(co-citation analysis)관계와 주제 네트워크(topic network)를 파악하여 사회학이 인접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위치를 분석한 시도가 있다(Moody and Light, 2006). 또한 국내의 경우 지식생산방식과 학문의 장이 구성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문제제기로 이론사회학의 연구경향성 분석이 시도되기도 했다(이재민·강정환, 2011). 행정학에서는 행정학과 복지행정학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성이 분석된 바 있다(최영출·박수정, 2011; 류상일·현택수, 2013). 일부를 살펴보면 최영출과 박수정(2011)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가 행정학의 핵심적 연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조직’, ‘행정’, ‘사회’, ‘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상일과 현택수(2013)에 따르면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복지행정학이 ‘복지’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요인’, ‘이테올로지’, ‘지방정부’의 주제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

학문의 경향성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문이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도전들에 더 잘 적응하고 전략적 자리매김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Hodge et al., 2012).

3) 연구경향성 분석

사회과학에서 연구경향성분석(trend analysis)은 Rubin과 Babbie(2008)의 연구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표본을 바탕으로 전체의 특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라 볼 수 있으며, 연구목적에 따라서는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기술연구라 볼 수 있다. 한편 가공물을 분석 단위로 시간에 따른 추이를 파악하는 중단 연구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연구경향성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다. 내용분석은 정보를 연구자가 선정한 명료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은 수의 내용 범주로 압축하는 체계적 기술이다(Krippendorff, 1980; Stemler, 2001). 분석을 통해 각 논문을 꼼꼼히 살펴 종합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McMahon and Allen-Meares, 1992), 내용분석은 약 140년 전부터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Stemler, 2001). 그러

나 이 방법은 분석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증하는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Börner et al., 2003). 뿐만 아니라 분류기준을 설정할 때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분류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자의 주관성의 개입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은 남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네트워크분석방법이다. 내용분석법이 각 논문 한편 한편을 분석한 산출물을 통해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즉, 조각을 맞춰 전체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방식이라면 네트워크분석방법은 전체그림 그 자체를 그려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각을 통해 전체를 보는 것은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불리하다. 반대로 전체그림을 보는 것은 세부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즉, 각각의 방법은 그 자체가 지닌 속성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분석의 목적은 “연결망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김용학, 2013)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분석의 단위와 범위, 수준을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연결망 속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관계는 개별 개체의 속성이 아닌 개체가 속한 체계의 특성이며 따라서 개별 개체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러한 네트워크분석의 역사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개인 간, 집단 내, 집단 간의 관계의 특성을 밝히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18년간의 지리학 연구들의 컴포넌트의 구조를 분석한 Gattrell(1984)의 연구를 시초로 들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저자 등을 분석단위로 활용하며, 중심성, 컴포넌트나 코어분석 등을 통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시각화는 연구들 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 및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Gattrell(1984)는 컴포넌트와 코어분석을 통해 논문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특정한 아이디어와 접근이 어떻게 영향력을 얻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Scott, 1994).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내용 분석법이 가진 분류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물론 Scott(1994)이 언급한 것처럼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지적 판단과 분석은 중요한 문제이기 하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정제된 분석단위(예: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심성이나 군집자체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소지는 줄어들 수 있다.

분석단위로서의 주제어(키워드)는 연구 그 자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동시출현(co-occurrence)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된다(Cobo et al., 2011). Shiffrin과 Börner(2004)는 이러한 분석방법이 학문이 발전하는 방향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렇게 관계를 통해 학문의 특성과 경향성 등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최근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더욱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Morris and Van Der Veer Martens, 2008; van Eck and Waltman,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위치와 모습을 파악하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사회복지행정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는 내용분석방법과 네트워크분석방법 모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의미 있는 논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연구경향성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McMahon과 Allen-Meares(1992)에 근거하여¹⁾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를 선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16권 2호)까지 최근 10년간 출간된 연구논문 221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1개의 논문은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분석은 221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분석은 220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최근 10년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급격한 제도적·조직적 환경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이며, 둘째, 최근에 등장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1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Greenwood, 1957; Tripodi, 1984; Sellers et al., 2004; Jones et al., 1998; Hodge et al., 2012; Kreisberg and Marsh, 2015; 이재민·강정한, 2011; 최영출·박수정, 2011; 최호택·정석환, 2011). 실제로 국내연구에서 최영출과 박수정(2011), 최호택과 정석환(2011), 이재민과 강정한(2011) 등은 대체로 5년에서 10년간의 연구결과물들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영종(2010)이 사회복지행정의 도입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회복지행정학의 평가를 시도한 바 있고, 그의 연구에서 지적되듯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혼돈을 경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의 연구경향성을 분석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Börner et al.(2003)의 일반적 절차인 (1) 데이터추출, (2) 분석단위의 정의, (3) 측정방법의 선택, (4) 유사성 계산, (5) 배열, (6) 디스플레이의 과정을 따랐다. 본격적 분석에 앞서 서지자료를 데이터화하기 위해 분석대상 논문을 연도, 권, 호, 저자, 제목, 키워드를 엑셀을 활용하여 목록을 작성 한 뒤, 키워드를 통일하는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으로 인한 편이가 생기지 않도록 띄어쓰기와 조사 사용을 통일하였으며, 전체 키워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들부터 추려내어 보수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같은 개념을 지칭함에도 줄임말 또는 유사단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의어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키워드 정제작업은 이재민과 강정한(2011)을 참고하였다. 또한 키워드로만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동일 키워드로 간주하였다. 이

1) McMahon과 Allen-Meares(1992)의 연구는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회지 선정 시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일개 지역이 아닌 전국 차원의 저자와 독자가 있는지, (2) 사회복지행정 분야에서 주요 학회지이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간주되는지, (3) 이전에 내용분석이 시도된 학회지인지, (4)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에 학회지가 출간되었는지, (5) 지나치게 특정한 전문 분야만을 대변하지 않는 학회지인지

작업은 연구진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4차례의 교차검토와 논의의 작업을 거쳤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치기 기법(pruning method)을 적용, 3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48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은 일반적으로 전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링크는 삭제하는 방식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 때 보통 사용되는 방식이 데이터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지점에서의 컷오프(cut-off)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의 수와 기울기를 함께 고려하여 컷오프 지점을 3회에서 2회로 넘어가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밀집 네트워크(dense network)를 다룰 때 키워드 간의 명확한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Chen, 2004). 가지치기작업을 거쳐 다시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을 이용한 키워드 유사성 네트워크를 생성한 뒤, 자기루프(self loop)을 제거하고 컴포넌트(component)와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는 NetMiner 4.0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서술적 분석과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 분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서술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Taber and Shapiro, 1965; McMahon and Allen-Meares, 1992)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1) 연구방법, (2) 연구지역, (3) 연구 분석단위, (4) 데이터 종류를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방법의 경우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이 양적연구인 경우,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근거중심실천논의가 대두됨에 따라(Webb, 2001; Gibbs and Gambrill, 2002; Gambrill, 2006), 근거중심실천의 논의가 있는지, 개입연구인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지역의 경우, 우선 한국, 한국 외 국가, 국내외를 함께 다룬 경우, 기타로 분류한 뒤, 한국에 속할 경우 (1)'전국', (2) 특별시·광역시·도를 의미하고 보다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 (3) 시·군·구를 의미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4) 기타, (5) 알 수 없음으로 추가 분류하였다. 연구 분석단위는 (1) 개인, (2) 조직, (3) 정책 또는 행정 (4)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2) 조직에 속할 경우 (1) 정부 및 지자체를 의미하는 공공조직, (2) 사회복지관련조직(예: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등), (3) 영리기업으로 추가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종류의 경우에는 (1) 2차데이터 (2) 수집데이터 (3) 기타 (4)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는데 2차데이터는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수탁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말하며, 수집데이터의 경우 연구자가 본 연구만을 위해 수집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기타의 경우 문헌자료 등을 분석한 경우를, 해당없음의 경우 특정주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적 영역은 (1) 조직 관리, (2) 환경관리, (3) 자원관리(인적자원, 물적자원), (4) 프로그램관리, (5)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수직적 영역은 (1) 정책(policy), (2) 관리(management), (3) 서비스(service), (4)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해당 영역을 선정한 뒤, 2차례 교차검토하여 가장 주된 영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참여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는 수평적 영역은 자원관리(인적자원)에, 수직적 영역은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위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학 개론 교재(양점도 외, 2008; 황성철 외, 2013)에서 제시하는 영역 구분으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황성철(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들은 사회복지조직과 조직의 내·외부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분류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치된 견해가 반영된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Kouzes and Mico, 1979; Lewis et al., 2001; Skidmore,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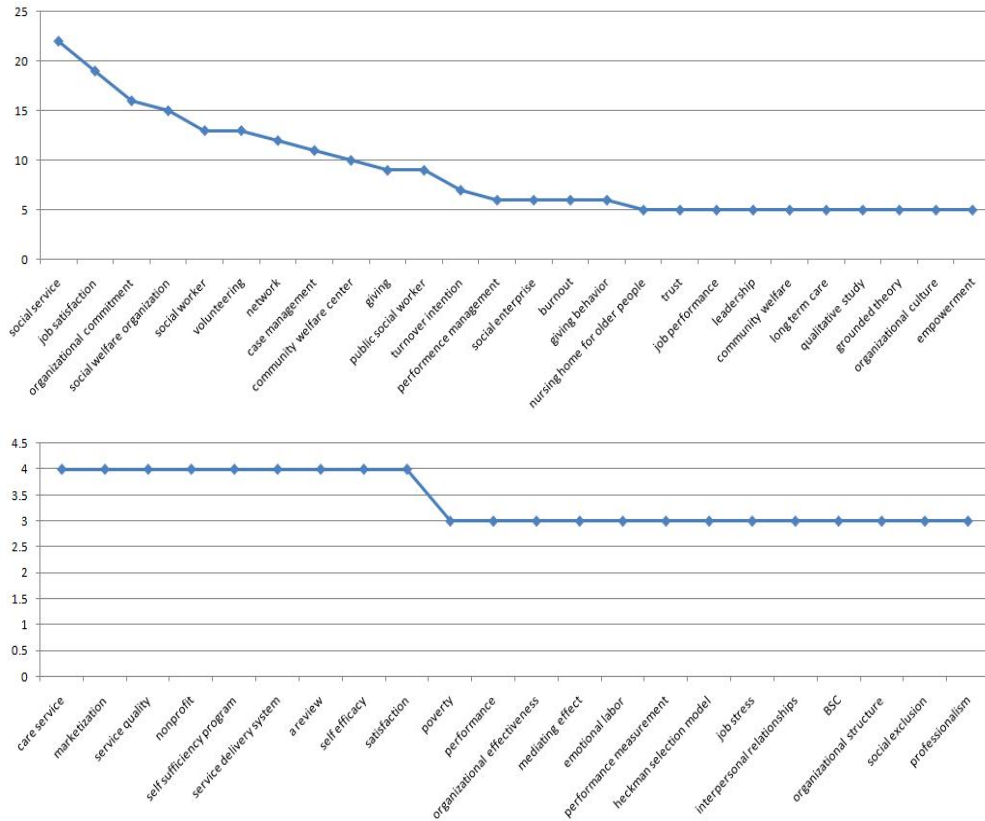
4. 분석결과

1) 네트워크분석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핵심주제어는 총 989개였고 편당 평균 4개~5개의 주제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워드 정제작업 후 3회 이상 나타난 키워드는 48개였다.

연결정도(degree)에 있어 높은 순으로 주제어를 나열하면, ‘social service’(22), ‘job satisfaction’(19), ‘organizational commitment’(16), ‘social welfare organization’(15), ‘social worker’와 ‘volunteering’(13), ‘network’(12), ‘case management’(11), ‘community welfare center’(10), ‘giving’, ‘public social worker’(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등장하는 몇몇 키워드들은 비교적 새로운 연구주제의 등장이나 연구방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었다. ‘emotional labor’은 최근 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에서 나타났으며, ‘network’는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nursing home for older people’의 경우 핵가족화 및 만성질환 고령노인의 증가와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최근 들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직유형이다. ‘social enterprise’와 ‘marketization’은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제어라 할 수 있으며 ‘leadership’과 관련해서는 ‘ethic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ethical leadership’은 윤리경영, 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 및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qualitative study’는 주로 서비스 이용과정, 감정노동, 사회복지조직의 성장과정을 연구주제로, ‘heckman selection model’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연구주제로 하는 논문에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리하면, 연결정도(degree)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협의의 개념적 범위를 주로 다루어 왔으며, ‘social servi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ocial worker’와 같은 전통적 주제가 주를 이루고, 최근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rketization’, ‘case management’, ‘network’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주제들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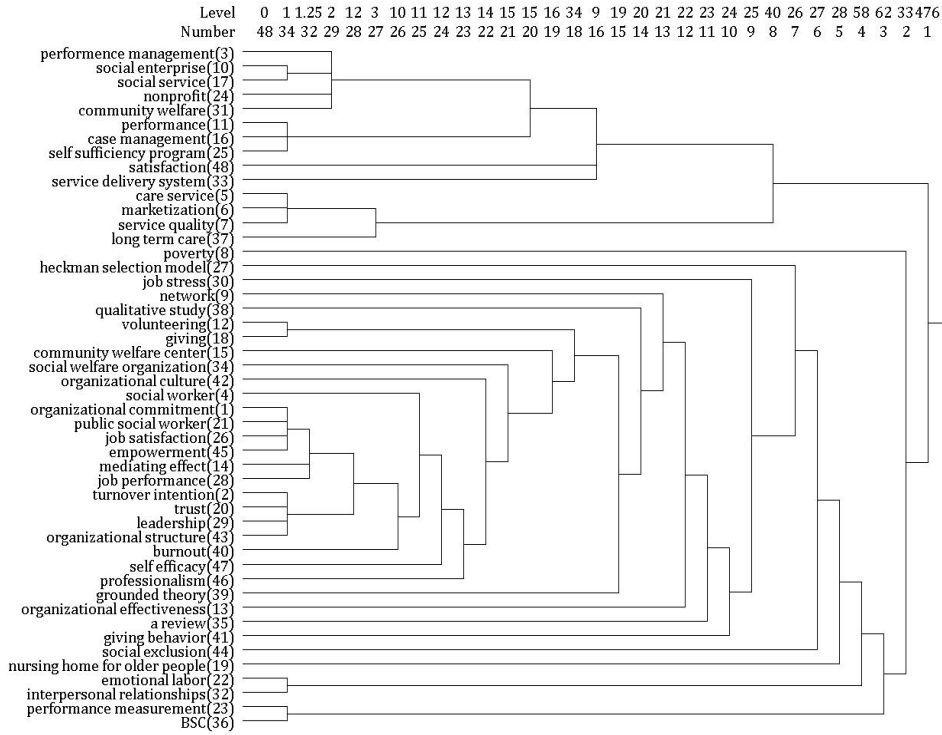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논문의 핵심어 빈도분석결과(3회 이상), 2005년-2014년

〈그림 2〉는 매개중심성을 Eades(1984)의 알고리즘을 개선한 분할벡터를 사용한 Clustered Eades 방식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job satisfaction', 'social servic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ocial worker', 'public social worker'의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들과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사자의 직무 만족과 직무요인과의 관계 또는 종사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에 따르면 연결정도가 높은 키워드들이 매개중심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job satisfaction', 'social servic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ocial worker'와 같은 키워드들은 가장 많이 연구됨과 동시에 'job stress', 'emotional labor', 'BSC'와 같은 키워드들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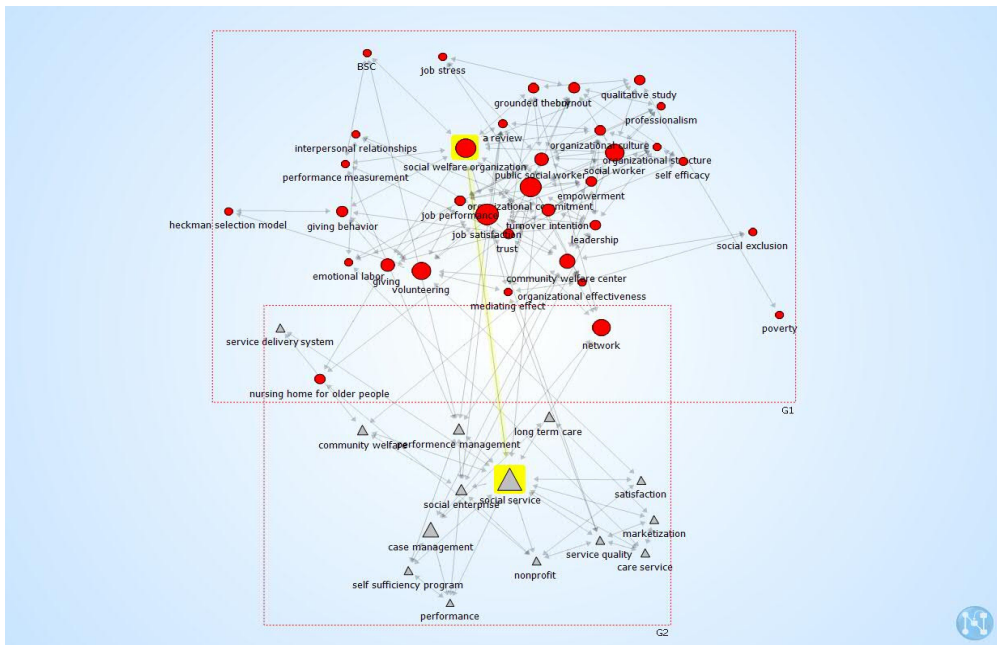


〈그림 2〉 키워드 간의 매개중심성

다음으로 키워드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유사성의 수준에 따른 군집을 보여주는 텐드로그램분석(Scott, 1991)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social welfare organization’와 ‘social service’의 2가지 클러스터로 구분되는데 ‘social welfare organization’은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public social worker’, ‘community welfare center’와 같은 키워드를, ‘social service’는 ‘case management’, ‘social enterprise’, ‘service quality’와 같은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러스터의 크기는 ‘social welfare organization’이 ‘social service’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질,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보다는 조직문화, 조직구조나 사회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과 같은 사회복지조직 내에서의 인적자원 및 관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림 3〉 덴드로그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



〈그림 4〉 덴드로그램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링

2) 내용분석결과

내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방법은 양적연구(52.5%)의 비중이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 중 개입연구는 총 3편으로 전체 양적연구의 2.6%에 불과하였다. 질적연구와 문헌연구의 비중은 전체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혼합연구의 비중은 양적연구의 1/10 정도로 미미하였다. 연구지역은 전국(89.1%),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외 연구나 국내외 연구, 지방(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 4-5% 정도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종류는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56.8%)나 2차데이터(23.4%)가 가장 많았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51.1%)이 가장 많았고, 조직이나 정책 대상 연구도 각각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 분석단위 중 조직을 세분류해 본 결과, 사회복지관련조직(80.0%)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 논문의 일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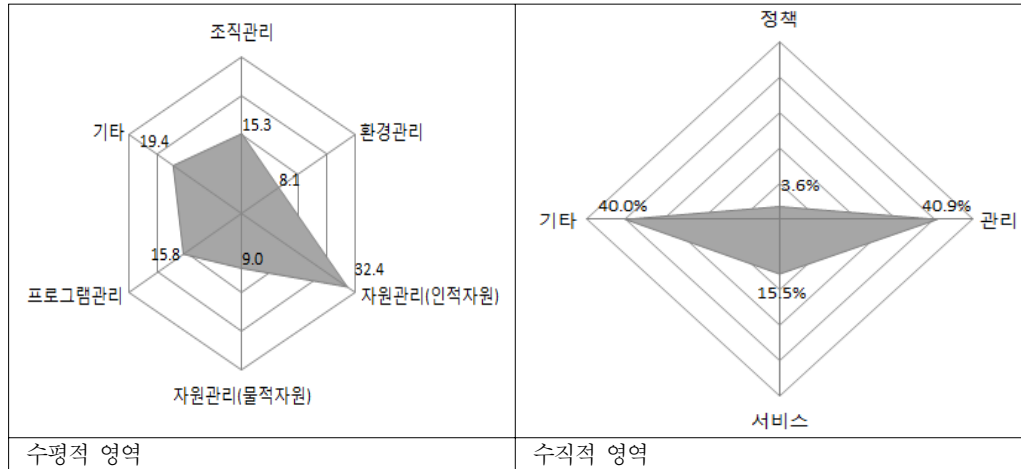
(단위: 편, %)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연구방법	양적연구	116	52.5	데이터 종류	2차데이터	52	23.4
	질적연구	35	15.8		수집데이터	126	56.8
	혼합연구	13	5.9		기타	37	16.7
	문헌연구	25	11.3		해당없음	7	3.2
	기타	32	14.5		전체	222	100.0
	전체	221	100.0		개인	121	51.1
연구지역	한국	197	89.1	연구 분석단위	조직	52	21.9
	전국	44	21.7		공공조직	9	12.9
	광역지방자치단체	81	39.9		사회복지관련조직	56	80.0
	기초지방자치단체	11	5.4		영리기업	5	7.1
	기타	40	19.7		전체**	70	100
	알수없음	27	13.3		정책/행정	47	19.8
	전체*	203	100.0		기타	17	7.2
	한국 외 국가	9	4.1		전체	237	100
	국내외	9	4.1				
	기타	6	2.7				
	전체	221	100.0				

*해당 전체 빈도(n=235)는 한국 내 지역 세분류 응답의 경우, 다중응답으로 기재함에 따라 전체 한국 빈도(n=197)와는 차이가 있음. **해당 전체 빈도(n=70) 또한 조직 세분류 시, 다중응답으로 기재함에 따라 전체 조직 빈도(n=52)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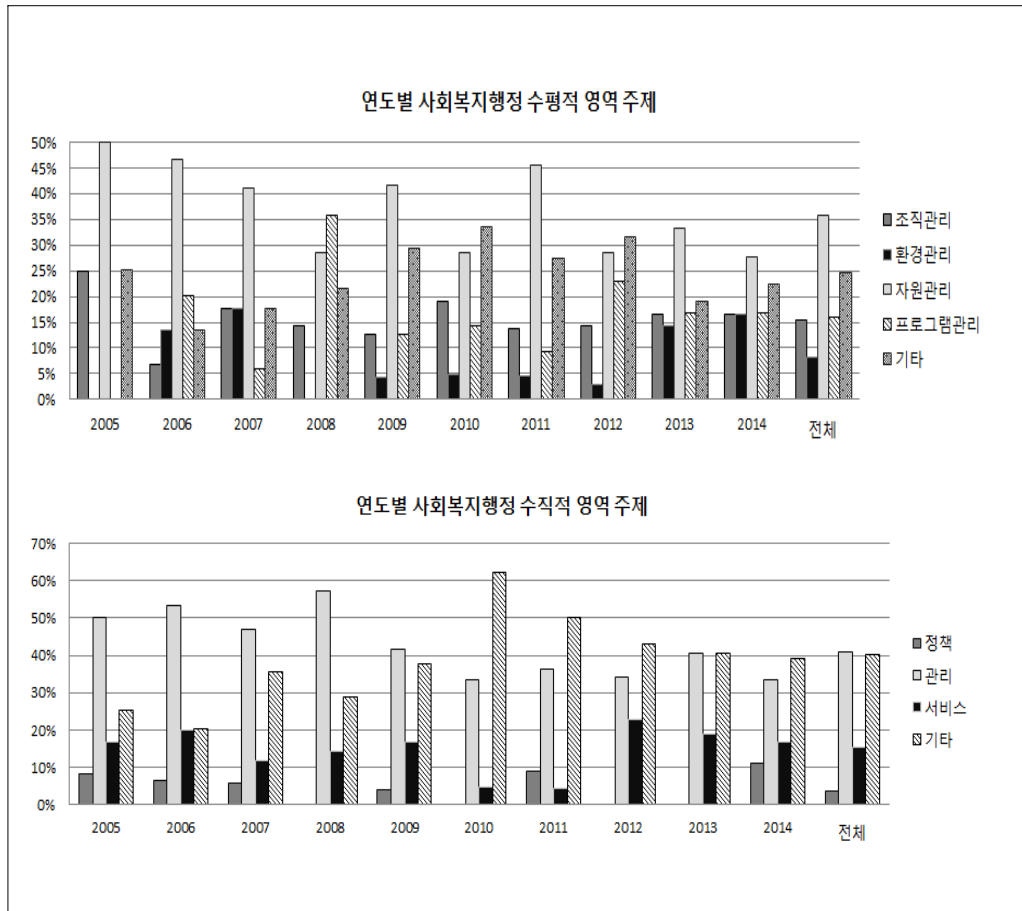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 영역은 주로 자원관리 영역,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직적 영역 또한 관리 영역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수평적 영역에서 프로그램관리나 조직관리, 환경관리, 물적자원관리 등의 영역은 인적자원관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행정의 주

요 영역들이 골고루 연구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직적 영역에서도 드러나며, 특히 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전체 연구의 3.6% 정도에 그쳤다.



〈그림 5〉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 분포

학회지에 나타난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의 분포를 연도별로 확인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평적 영역에서는 자원관리 영역이, 수직적 영역에서는 관리 영역의 출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영역들에 대한 연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차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몇 영역들은 특정 시점에서 연구출현율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수평적 영역에서 환경관리는 2013년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십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2012년 대비 약 5배의 연구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정학의 연구경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는데 최영출·박수정(2011)에 따르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핵심적 연구로 부상하였다. 수직적 영역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 고용서비스, 유망사회서비스 등 연구가 급증하는 행태를 보였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역들 간의 연구 비중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하게 되었으며, 그 기저에는 새로운 제도나 사회적 이슈의 대두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연도별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 주제

3) 분석결과 종합

최근 10년 동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에 게재된 2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연구는 관리(management)에 중점을 둔 협의적 개념, 즉 사회복지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상호의존적이면서 체계적인 개입과정(Patti, 2000)과 관련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 주제 및 영역과 연구방법에 관련된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주제 및 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조직’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그림 3〉, 〈그림 4〉 참조),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인적자원과 관련된 주제들이 가장 많이 연구됨(〈그림 2〉 참조)과 동시에 다른 키워드들을 매개하는 역할(〈그림 3〉 참조)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용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사회복지행정의 수평적·수직적 영역 가운데 자원관리와 관련된 연구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며(〈그림 5〉 참조), 특히 인적자원관리 연구

(88.6%)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중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회복지행정의 영역들의 연구 출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차 골고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6〉 참조). 한편, 위의 영역에 포괄되지 않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있어 민간영리조직의 진입 및 공급처의 다양화와 민간자원의 확대 등 시의성에 응답하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부,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들도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다가 그 논의가 학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주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구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도입되는 초기단계에서의 탐색적 특성이거나, 혹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문제해결형 연구로써 등장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현장과 학계의 유기적인 접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현장과의 협업 속에서 연구가 발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주제들의 출현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자원관리 및 사회복지조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학문적으로 '안전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이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실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단위와 연구지역, 데이터 종류, 방법 등에 있어 국내에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양적연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회복지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몇 이슈들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최근 EBP와 관련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Hoagwood et al., 2001) 개입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는(Greene et al., 1989; Johnson et al., 2007) 혼합연구(mixed-method)의 비중 또한 양적연구의 1/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지역의 경우에도 국내연구에 비해 국외와 국내의 연구의 비율을 합치더라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문의 발전을 위한 시각의 확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학계 및 실천현장의 관심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비중이 약 5% 수준에 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의 경우 사회복지관련조직에 치중되어 있어, 공공조직이나 영리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다양한 조직 유형을 다루는 연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강철희 외(2015)는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 및 공공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공공과 민간 모두에 걸쳐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사회복지행정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상이나 방법, 연구지역, 주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실천현장과 연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 및 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논의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급변하는 제도적·조직적 환경 하에 놓여 있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지방이양,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이 있었다. 조직적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자로 영리조직이 진입하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조직 형태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전통적 사회복지조직과 비영리조직의 경계의 모호성과 확장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간에도 나타난다. 즉, 공공, 비영리, 영리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행정의 공급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기와 기회로 논의되는 다양한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속에서, 연구결과물들이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학문의 장이 구성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라 할 수 있으며(이재민, 강정환, 2011), 이와 관련하여 Bourdieu(2004)는 학문의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장에 대한 응시와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경향의 분석은 학문생산구조의 과거, 현재에 대한 점검이자, 발전적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사회복지행정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행정 연구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사회복지행정에서 나타난 연구들은 주로 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서야 그 외의 영역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가 자원관리임을 보고한 황성철(2002)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나 재무관리, 책임성,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정보관리(Dunleavy et al., 2006; Ezell, 2000; Grinnell and Unrau, 2005; Poertner, 2009)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는 사실 사회복지행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도 한다(강철희 외, 2015).

둘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홍경준(2002)과 오정수(2002)는 사회복지학의 연구주체가 점점 다양해지는 반면 연구방법은 갈수록 획일화되고 양적연구방법에의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최근 10년간의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에 치중하여 왔으며, 이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이 양적방법론에 편중되었음을 보고한 김연옥(1998), 김미옥(2015), 윤영진(201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연구지역,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단위 등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임상시험에 대한 심사(IRB)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적절성 및 정확성을 보다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의 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연구, 예를 들어 사례연구, 개입연구, EBP, 농어촌지역 연구,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 그리고 담론연구는 매우 드물게 보고된다. 연구들이 환경적 변

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이론과 현장의 괴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접학문 들로부터 여러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행정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김연옥(1998) 또한 실천현장과의 협업이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정체성을 10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은 학문의 영역의 분포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 등 각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의 활용은 학문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큰 그림으로의 확인과 세부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가진다. 더욱이 인접학문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경향성 분석이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직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단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는 1999년 10월 창간호가 발간되어 2015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지이며, 연구자와 현장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회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다른 학회지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키워드의 용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구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한동우·조상미, 2015. “한국 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 사회복지교육: 현황, 과제, 그리고 대안』, 신정.
- 김미옥, 2015.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7(4): 153-180.
- 김상균, 2005.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와 전망”, 『한국사회복지교육』, 1(2): 1-17.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영중, 2010.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177-202.
- 김용학, 2013.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송위진, 2010.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STEPI Insight』, 47: 1-22.
- 류상일·현택수, 2013. “행정학에서 복지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1978년~2012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2): 254-262.
- 양점도·현영렬·조미숙·임희규·장정순, 2008. 『사회복지학 개론』, 경기: 광문각.
- 오정수,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13: 33-46.

- 이재민·강정환, 2011, “지식생산의 구조와 이론사회학의 위상: 『사회와 이론』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004~2010”, 『사회와 이론』, 19: 89-144.
- 이혜경, 1995,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3-74.
- 최연구, 2009,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과학기술정책』, 175: 40-45.
- 최영출·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3,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2013 사회복지교육정책세미나 자료집.
- 홍경준, 2011.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비판사회정책』, 13: 13-32.
- 황성철, 2002,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 153-177.
- 황성철·정무성·강철희·최재성, 2013, 『사회복지행정론』, 경기: 학현사.
- Börner, K., Chen, C., and Boyack, K. W., 2003, “Visualizing knowledge domain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7(1): 179-255.
- Bourdieu, P., 2004, *Science of Science and Reflexivity*, Cambridge: Polity.
- Bush, I. R., Epstein, I., and Sainz, A., 1997, “The use of social science sources in social work practice journals: An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Social Work Research*, 21(1): 45-56.
- Chen, C., 2004, “Searching for intellectual turning points: Progressive knowledge domain visual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303-5310.
- Cobo, M. J., López-Herrera, A. G., Herrera-Viedma, E., and Herrera, F., 2011, “An approach for detecting, quantifying, and visualizing the evolution of a research field: A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fuzzy sets theory field”, *Journal of Informetrics*, 5(1): 146 - 166.
- Dunleavy, P., Margetts, H., Bastow, S., and Tinkler, J., 2006, “New public management is dead—long live digital-era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3): 467-494.
- Eades, P., 1984, “A heuristic for graph drawing”, *Congressus Numerantium*, 42: 149-160.
- Ezell, M., 2000, “Financial management”, In R. J. Patti(Ed.). *The handbook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377-393. Thousand Oaks, CA: Sage.
- Gambrill, 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and policy: Choices ahead”,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3): 338-357.
- Gattrell, A. C., 1984, “Describing the structure of a research literature: Spatial diffusion modelling in geography”,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1(1): 29-45.
- Gibbs, L., and Gambrill, E., 2002, “Evidence-based practice: Counter arguments to objection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2(3): 452-476.
- Greene, J. C., Caracelli, V. J., and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255 - 274.
-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45-55.
- Grinnell, R. M., and Unrau, Y. A., 2005, An introduction to inquiry. In r. M. Grinnell, R. M., and Unrau, Y. A., (Eds.),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7th ed., 4-2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oagwood, K., Burns, B. J., Kiser, L., Ringeisen, H., and Schoenwald, S. K., 2001, “Evidence-based

- practice i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52(9): 1179-1189.
- Hodge, D. R., Lacasse, J. R., and Benson, O., 2012, “Influential publications in social work discourse: The 100 most highly cited articles in disciplinary journals: 2000 - 09”,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2(4): 765-782.
- Jones, D. R., Ripley, J. S., Kurusu, T. A. and Worthington, E. L., 1998, “Influential sources in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A decade summa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7(1): 43 - 54.
- Johnson, R. B., Onwuegbuzie, A. J., and Turner, L. A., 2007, “Toward a definition of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2): 112-133.
- Kidneigh, J. C., 1950, “Social work administration: An area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Journal*, 57-79.
- Kouzes, J. M., and Mico, P. R., 1979, “Domain theory: An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5(4): 449-469.
- Kreisberg, N., and Marsh, J. C., 2015, “Social work knowledge production and utilis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20.
- Kr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Lewis, J., Packard, T., and Lewis, M., 2011. *Management of human service programs*. Cengage Learning.
- McMahon, A., and Allen-Meares, P., 1992, “Is social work racist? A content analysis of recent literature”, *Social Work*, 533-539.
- Moody, J., and Light, R., 2006, “A view from above: The evolving sociological landscape”, *The American Sociologist*, 37(2): 67-86.
- Morris, S. A., and Van der Veer Martens, B., 2008, “Mapping research specialti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2(1): 213 - 295.
- Patti, R. J., 2000, *The handbook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Sage.
- Poertner, J., 2009, “Managing for service outcomes: The critical role of information”, In R. J. Patti (Ed.) *The Handbook for Human Services Management*, (165-181).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Rubin, A., and Babbie, E. 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 Scott, J. W., 1991, “The evidence of experience”, *Critical inquiry*, 773-797.
- Scott, J. W., 2012,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 Sellers, S. L., Perry, R., Mathiesen, S. G. and Smith, T., 2004, “Evaluation of social work journal quality: Citation versus reputation approach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0(1): 143-160.
- Shiffrin, R. M., and K. Börner., 2004., “Mapping knowledge domai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 5183-5185.
- Skidmore, R. A., 1995, *Social Work Administration: Dynamic 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hips*(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later, T., Scourfield, J., and Sloan, L., 2012, “Who is citing whom in social work? A response to

- Hodge, Lacasse and Ben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2(8): 1626-1633.
- Stemler, S., 2001,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7(17): 137-146.
- Taber, M., and Shapiro, I., 1965, “Social work and its knowledge base: A content analysis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Social Work*, 10(4): 100-106.
- Tripodi, T., 1984, “Trends in research publication: A study of social work journals from 1956 to 1980”, *Social Work*, 29(4): 353-359.
- van Eck, N. J. and Waltman, L., 2010, “Software survey: Vosviewer, a computer program for bibliometric mapping”, *Scientometrics*, 84(2): 523 - 538.
- Webb, S. A., 2001, “Some considerations on the validity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1): 57-79.
- Zastrow, C., 2013, *Empowerment Series: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Cengage Learning.

Research Trend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Korea - Using both Network and Content Analysis for the Recent 10 years -

Choi, Jae-sung
(Yonsei University)

Cheong, Sejeong
(Yonsei University)

Cho, Jayou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the studies on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ver a recent 10 year period. Employing both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hich are representative statistical strategie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we analyzed 221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rom 2005 to 2014.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wo clusters - “social (welfare) service”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in the studie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addition, more than 80% of articles are mainly related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includi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o forth. Second, the newly emerging academic subjects such as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network appeared to be done independently of traditional subjects. Third,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studies being focused on human resources was overwhelmingly high compared to the other types of studies; therefore, there are a few studies using qualitative or mixed method, evidence based practice, and discourse studies. In addition, the studies of the rural areas, which are a blind spot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studies about information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marketing, organization innovation rarely appeared, despite their significance.

Key word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rend studies, content analysis, network analysis

[논문 접수일 : 15. 11. 17, 심사일 : 15. 11. 24, 게재 확정일 : 16. 01. 13]